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7249 |
|----------|------|

발의연월일 : 2025. 1. 6.

발 의 자 : 임미애 · 서미화 · 박지혜

박지원 · 김준혁 · 이재정

이재관 · 차규근 · 김남근

한정애 · 이해민 · 김한규

박해철 · 정혜경 · 윤준병

김준형 · 이병진 · 조인철

이개호 · 민형배 · 이원택

이재강 · 김 윤 · 김문수

이용선 · 오세희 · 문금주

의원(27인)

### 주 문

일본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에 보관된 히젠도(肥前刀)는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가담했던 토오 가츠아키(藤勝顯)가 1908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櫛田神社)에 기증하여 보관 중인 일본도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1895년 음력 8월 20일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난입해 왕후(1897년 명성황후로 추존)를 직접 살해한 인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살인범으로 현상수배 되었던 사람이다.

을미사변의 범행에 사용되었던 살인 흉기가 일본 신사에 남아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격과 모욕감을 줌과 동시

에 우호적 한일관계를 토대로 열어가야 할 새로운 시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신뢰와 우호에 기반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히젠도를 압수하여 대한민국 정부  
에 인도할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히젠도(肥前刀)는 을미사변 당시 조선 왕후 살해에 사용된 살인도구로,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櫛田神社)에 보관되어 있음.

왕후를 살해한 토오 가츠아키(藤勝顯)는 조선 정부에서 현상금을 내걸었던 살인 용의자이고,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음.

토오 가츠아키는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석방된 뒤 범행에 사용되었던 칼을 쿠시다 신사에 봉납하면서 사건 당시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고 자백한 바 있음.

히젠도의 칼집에는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는 의미의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음. 이는 조선의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소위 ‘여우사냥’ 작전을 마친 뒤 새긴 것으로 알려져 토오 가츠아키의 자백과 일치함. 또한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토오 가츠아키의 봉납기록(奉納記錄)에도 칼집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단체 등이 쿠시다 신사를 방문하여 히젠도의 실물과 관련 기록을 확인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토오 가츠아키의 범행 당시 히젠도가 사용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임.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사사로이 보관될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조선의 왕후 살해에 사용된 흉기가 하

나의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어있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히젠도를 적절하게 처분할 것을 촉구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